

손흥민 ‘무관 탈출’ 여부 관심집중

22일 맨유와 2024~2025 유로파리그 결승전... 승리 시 손흥민 프로 데뷔 첫 우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의 무관 탈출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트넘은 오는 22일 오전 4시(한국 시간) 스페인 빌바오의 에스타디오 산 마메스서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024~20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전을 치른다.

이날 경기에는 토트넘과 손흥민의 무관 탈출이 걸려있다.

토트넘은 지난 2007~2008시즌 잉글랜드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째 정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EPL 득점왕 등을 통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도 프로 데뷔 후 소속팀에서 트로피를 들어본 적이 없다.

2019년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 등과 함께 팀을 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까지 뒀지만 리버풀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머물렀다.

2021년에는 리그컵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발목 잡혀 좌절한 바 있다.

이후 수많은 도전 끝에 UCL이라는 큰 대회에서 우승할 기회를 잡았다.

발 부상 문제도 해결했다.

손흥민은 회복 문제로 공식전 7경기에 결장했으나, 지난 11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2024~2025시즌 EPL 36라운드(0-2 패)에서 후반 교체 출전해 약 32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복귀점을 가졌다.

맨유와의 경기 전에 있을 애스턴 빌라와의 리그 37라운드에선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맨유 역시 최근 부진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우승이 절실하지만, 토트넘과 손흥민의 스토리가 맞물리면서 토트넘의 우승 여부에 더 관심이 쏠리는 듯하다.

영국 매체 ‘BBC’도 14일 “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손흥민을 UEL 결승전에 선발로 내세울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손흥민이 이번 UEL 결승을 통해 무관 탈출에 도전한다고 설명했다.

‘BBC’는 “손흥민이 이번 시즌 토트넘 소속으로 최고의 시즌을 보내지 못했다는 데엔 모두 동의할 것이다. 일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지난 11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 경기를 마친 후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부 팬은 손흥민이 주장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부상에서 복귀한 탓에 경기력, 신체적 문제 등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

UEL 결승전에서 경기에 출전할 컨디션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던 케인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케인은 당시 UEL 8강에서 부상 당해 온전한 몸 상태가 아니었으나, 무리하게 결승전에 출전에 침묵한 사례를 지금의 손흥민에게 빗댔다.

이어 매체는 “아마도 손흥민을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고 교체로 기용하는 게 타협안일 수 있다”며 “고집이 세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받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접근 방식에 승부수를 던질 때가 됐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선발이든 교체 출전이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자격은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수 본인 역시 의지가 남달랐다. 손흥민은 지난 13일 영국 매체 ‘가디언’을 통해 “모든 경기가 특별하고 의미 있지만, 이번 맨유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처럼 느껴진다. 이번에는 느낌이 다르다”며 “누구보다 이기고 싶다. 많은 분이 나와 같은 열정을 갖고 우리를 응원해 주고 계신다. 잘 준비한다면 (우승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최근 중국 장산에서 열린 2025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서 문민희가 값진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전북 女역도 문민희 亞선수권서 빛 발휘

동메달 3개 획득

전북 여자 역도를 이끌고 있는 문민희(하이트진로)가 아시아 대회에서도 빛을 발휘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장산에서 열린 2025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서 문민희가 값진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64kg급에 출전한 문민희는 인상 94kg, 용상 120kg, 합계 214kg을

들어 올렸고, 3개 부문에서 모두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 체급 우승은 중국 선수가 준우승은 필리핀 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하이트진로 염옥진 감독은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이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민희는 지난해 전국체전 3관왕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하며 전북 역도를 빛내고 있다. /뉴시스

축구 꿈나무들의 합성, 정읍체육공원에 울려 퍼지다 | 동학농민혁명기념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미래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합성 합성이 정읍체육공원에 울려 퍼졌다.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이 1차(3일~5일)와 2차(9일~12일) 대회로 나뉘어 총 6일간의 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과 정읍시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1, 2차 경기를 합쳐 전국 각지에서 총 101개의 유소년 축구팀,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마음껏 펼치며 푸른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궜다.

대회는 조별 리그 예선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어린 선수들은 나이를 잊게 하는 놀라운 집중력과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경기에 임했다. 그라운드를 힘차게 누비는 아이들의 열정적인 모습은 관람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자아내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열린 경쟁 끝에 각 부문별 우승팀이



정읍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가려졌다. 1차 대회에서는 △U-8 광주제일FC △U-9 광주신화축구단 △U-10(동학리그) KCU축구클럽 △U-10(농민리그) 영웅FC △U-11 진주FC △U-12 영웅FC 팀이 각각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어 진행된 2차 대회에서는 △U-8

대전티키타카 △U-9 김영후FC △U-10(동학리그) 마산JFC △U-10(농민리그) JK풋볼아카데미 △U-11 정읍로얄FC △U-12 영웅FC 팀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U-12 부문에서는 영웅FC가 1, 2차 대회 모두 우승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대회가 경기의 승패를 떠나 참가한 모든 유소년 선수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도전을 응원하고, 서로 간의 우정을 돈독히 나누는 소중한 경험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男피겨 차준환,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더 큰 책임감 갖고 임할 것”

남자 피겨 스케이팅 간판 차준환이 14일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에 입단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차준환 입단식을 개최했다. 입단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태선 서울시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차준환에게 유니폼을 입혀주며 서울시청 소속이 된 차준환 선수의 입단을 환영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차준환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5위, 2022 ISU 4대륙 선수권대회 금메달, 2023 ISU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각종 대회에서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최초 기록을 세우고 있다.



차준환은 “서울시청 피겨팀의 첫 번째 선수로 입단하게 돼 정말 영광스럽고 설레는 마음이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업팀이 창단되었다는 점에서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제는 서울시청 소속 선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훈련과 경기에 임하겠다”라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뉴시스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